

한국불교 수행지침 정립 수좌회 ‘선원청규’ 발간

6년 준비 거쳐 10일 봉정법회

한국불교 수행자의 지침서가 될 <선원청규(禪院淸規)>가 발간됐다. 전국선원수좌회 선원청규편찬위원회(위원장 의정스님)는 <선원청규> 발간에 맞춰 지난 10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정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원로회의 부의장 밀운스님, 총무원장 자승스님,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스님, 중앙총회의장 보선스님, 호계원장 범등스님, 교육원장 현응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100여명이 참석했다. ▶관련기사 11면

법전 중정제하는 원로회의 부의장 밀운스님이 대독한 법어에서 “청규는 정제대해중(淸淨大海衆)의 규구준승(規矩準繩·목수가 쓰는 그림쇠, 자, 수준기, 먹줄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법도)”이라면서 “대한(大韓)의 조계종 선림(禪林)에서 다시금 저작(著作)을 산보(刪補·불필요한 것을 깎아내고 필요한 것은 보충)하였구나”라고 말했다.

선원청규편찬위원회 의정스님은 편찬사를 통해 “역사와 대중의 요구에 조응하기 위해 수행의 산실이자 부처를 선포하는 전통선원에 시대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규범으로서의 청규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라면서 “간화정종(看話正宗)이 이 땅에 영구히 유통되고, 개선된 수행 풍토 속에서 눈 밝은 용상선덕(龍象禪德)들이 속속하여 불조의 해명을 이어 불교를 증흥시키고, 21세기 문명의 대안 역할을 충실히 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격려사에서 “(선원청규 편찬에) 깊은 원력으로 지혜를 모아주신 수좌스님들께 고개 숙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굳은 확신과 원력이 실천수행을 통해 빛을 발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면서 “조계종문에 선종이 진작되고 수행가풍이 되살아나기를 간절히 염원한다”고 밝혔다.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스님과 중앙총회 의장 보선스님도 축사를 통해 <선원청규>의 발간을 축하했다.

수덕사 방장 설정스님은 “오늘은 선원청규를 부처님께 올리고, 우리의 각오를 다지는 자리”라며 “청규는 우리 생활의 지침이고, 규범”이라고 강조했다.

설정스님은 “스님들의 생활이 청

정하고, 자비롭고, 향기롭고, 모든 중생에게 이익을 줘야 한다”면서 “종단의 모든 스님들이 청규를 실천할 때 선원청규를 만든 보람이 있다”고 밝혔다.

중앙총회 의장 보선스님은 “선원청규의 발간을 계기로 한국불교의 유구한 수행전통이 바로 서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행자들에게 필요한 수행규범이 안착되어 시행되길 바란다”면서 “선원청규가 출가자 스스로를 일깨우고 실천하는데 바른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편찬위원장 의정스님은 종정예하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원로회의 부의장 밀운스님이 대신 수여했다.

봉정법회에서는 전국선원수좌회 학술위원장 월암스님이 2004년 8월부터 6년간 진행된 제작 과정 등에 대해 경과보고했다.

전국선원수좌회 대표 현산스님은 고불문을 낭독했으며, 원로회의 부의장 밀운스님, 총무원장 자승스님, 덕숭총림 방장 설정스님, 중앙총회 의장 보선스님, 호계원장 범등스님, 봉암사 수좌 적명스님, 전국선원수좌회 대표 대원스님, 편찬위원장의 정스님이 불단(佛壇)에 <선원청규>를 올리는 봉정(奉呈)의식을 거행하기도 했다. 이영수 기자



지난 12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열린 행복나눔 김장행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등 종교계, 시민단체, 기업체 대표와 자원봉사자 600여명이 손수 김장김치를 담그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자비사랑 김장김치’ 맛보세요

먹거리나누기운동협·SK텔레콤, 조계사서 울력
750개 무료급식시설·저소득 4722세대에 전달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종교계와 기업, 시민단체가 힘을 합쳐 자비와 사랑을 담은 김장김치를 만드는 나눔의 장이 열렸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한국기독교교장로회총회, 성공회푸드뱅크, 부스르기사랑나눔회가 연합한 먹거리나누기운동협의회는 지난 12일 서울 조계사 앞마당에서 SK텔레콤과 함께 ‘행복나눔 김장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김장행사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조계사 주지 토진스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대오스님, 김중성 한국기독교교장로회총회장, 김근상 대한성공회 관구장, 정만원 SK텔레콤 대표와 임직원, 이경립 부스르기사랑나눔회 상임이사, 가수 권진원 씨, 육군 56사단 장병 등 6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가했다.

109.4ton의 김장김치를 담은 이날 김장행사는 연천의 배추 5만4700포기와 무, 신안 비금도의 천일염, 영월의 고춧가루, 신안의 새우젓, 무안의 양파 등 모든 재료를 국내산으로 사용하고 MSG를 넣지 않는 등

건강한 먹거리를 지원했다. 김장김치는 전국 750개 무료급식시설과 한부모가정과 독거노인, 결식아동 등 저소득가정 4722세대에 전달돼 따뜻한 겨울나기에 일조하게 된다.

성공회 ‘혜불 동영상’ 사과

김근상 주교, 12일 총무원장 자승스님 예방

최근 잇따르고 있는 개신교인들의 불교편향과 관련, 김근상 성공회 주교가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근상 성공회 주교, 김광중 성공회 신부는 지난 12일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찾아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하고 성공회 소속 신부의 불교편향 동영상 제작 참여에 대해 사죄했다.

김근상 주교는 “불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 드릴 말씀이 없다”며 “큰 무례를 범해 총무원장 스님과 불교 교단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우리나라의 경우 겉으로는 종교간 평화와 화합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많은 종교편향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증오범죄자법과 같이 종교지도자들이 모임을 통해 실질적으로 종교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근상 주교는 “종교편향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를 정성껏 김장김치를 만들자”고 격려했다.

한편 행복나눔 김장행사는 지난 1996년부터 저소득계층의 결식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먹거리나누기운동협의회와 SK텔레콤이 공동으로 15년동안 진행해오고 있는 연말의 대표적인 김장나눔행사다. 특히 SK텔레콤은 지난 15년동안 68만 3300포기의 배추와 김장비를 지원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해오고 있다.

박인택 기자 parkintak@ibulgyo.com

사찰음식 학술심포지엄
소임자 이론·실습 교육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부장 효탄스님)는 오는 20일 오후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사찰음식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사찰음식에 대한 대중적인 이해를 넓히고 사찰음식 발전을 위한 학술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이번 학술행사는 ‘경전 속에서 나타난 사찰음식’ ‘사찰음식의 대중화(세계화) 방안’ 등 모두 4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문화부는 오는 23일 전국비구니회관에서 사찰음식 소임자를 대상으로 이론 및 조리실습교육을 실시한다.

김하영 기자 hykim@ibulgyo.com

직영사찰 매년 실적 평가한다

총무원, 운영관리규정·사서실설치령 개정

직영사찰운영관리 규정이 개정됐다. 조계종 총무원은 개정된 직영사찰운영관리 규정을 지난 9일 공포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직영사찰의 성격을 △재원 출연 △목적불사 △종단 외호 등으로 구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직영사찰 관리인 등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도록 했다.

목적불사 수행중심 직영사찰의 관리인은 예산 편성시 △교육, 수

행, 복지, 문화 등에 필요한 목적사업비 △종단에서 추진하는 주요 목적사업비 △지역포교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등을 우선 편성해야 한다. 또한 예산에 반영된 항목 이외의 개인 및 단체 보조금 지원의 경우 사전에 총무원에 보고해 지시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다.

총무원장은 직영사찰에 대해 기획실 감사국을 통해 연 1회 정기감

사를 시행하고, 직영사찰 관리인에 대해 매년 업무실적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직영사찰 관리인은 당해 연도 사업실적에 관한 사항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총무원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당월 재무제표는 다음월 10일 이내에, 분기별 사업운영 현황은 분기종료일 1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총무원은 총무원장사서실 설치령을 지난 2일자로 개정·공포했다. 총무원장 특별보좌관의 원할수 사전에 총무원에 보고해 지시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다.

이영수 기자 soolee@ibulgyo.com

불교환경연대 ‘숲유치원’ 개설 4면

진흥원 ‘군포교기금 1억원’ 전달 5면

템플스테이
TEMPLESTAY

2011년도 템플스테이 신규 운영사찰 선정 공고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한국사찰의 전문문화적 자원과 정신문화적 가치를 국민들과 그리고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템플스테이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템플스테이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는 사찰을 선정하고자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단장 정만

템플스테이 신규운영 사찰 기본 요건	제출서류	신청 일시 및 방법
•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참여자 30인 이상이 전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법당, 강의실, 숙소) 및 사용에 불편이 없는 편의시설(화장실, 세면장 등)을 갖춘 사찰 • 수련회 또는 유사 프로그램 운영 경험자 등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별도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사찰 •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찰로 전통 가람구성의 기본적인 양상을 갖춘 사찰	• 접수 공문 • 신청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www.buddhism.or.kr / www.templestay.com • 사찰 제작 홍보물(2부 이상, A4 용지에 첨부하여 제출) • 사찰 조감도 또는 가람 배치도 • 전경 및 시설 내·외부 사진	• 접수기간 : 2011년 12월 11일(금)~12월 17일(금) 오후 6시까지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주 소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71번지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4층 • 결과발표 : 개별 연락 및 템플스테이 홈페이지 (www.templestay.com) • 문 의 : 템플스테이팀 사찰지원 담당자 ☎ 02-2031-2016, 02-2031-2025, 이메일 : wind4908@templestay.com